

## 초등학생의 학습자 양식에 따른 영어 수업 연구

박선영  
(광주계림초등학교)

### 초록

이 연구는 광주계림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VARK 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습자 스타일을 고려한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키우고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실행하였다. 생활 속 이야기 및 실생활 자료를 바탕으로 시각형(Visual), 청각형(Auditory), 촉각형(Tactile), 사회형(Sociable) 학습자를 위한 활동 및 여러 감각을 통합한 multi-sensory 활동을 투입한 결과 학생들의 흥미 및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있어서 유의미한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 I. 서론

#### 소통의 열쇠를 찾아서

□ 영어에 대한 우리의 생각



영어공부에 대해 중요시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은 영어를 왜 배워야하는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영어를 접하게 되며, 낯선 이국땅의 말로서 영어를 접하게 된다. 이미 학원에서 영어를 접한 학생들은 자신감 있게 수업에 참여하지만 영어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의 경우 영어를 배우고 온 학생에 비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자신감’이라는 문제로 씨름하게 된다. 그러다가 결국 영어를 포기하거나 거부감을 가지게 되는 ‘**영어포기자**’들과 소위 학원에서 배워서 수업시간에 이를 뽐내는 ‘**학원파**’, ‘**해외연수파**’로 나뉘게 된다. 이러한 양극화된 영어수업 상황에서 **영어의 필요성**, 그리고 **아이들의 자신감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 □ 우리의 고민

좀 더 교실 속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교사는 교사 나름대로,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영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을 교실수업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교사 나름대로의 노력, 그리고 영어에 대한 중압감과 위축감 속에서 스스로와 싸우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 게다가 교실 영어수업은 자칫하면 실생활과 동떨어진 상태에서 아무런 소통 없이 ‘영어 낱말/문장 암기’를 확인하는 기계적인 게임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는 함정이 있다. 우리는 각기 전투에서 벗어나, 어디에서 영어 교실에서의 ‘소통’의 열쇠를 찾아야 하는 것인가?



## 교사로서의 고민

교사로서는 5년차, 그리고 영어를 가르쳐 온 것은 3년째가 되었다. 영어를 가르치면서 단순한 drill 위주로 교과서에 나온 표현에 제한되어 수업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였고 기계적으로 말하고 있는 아이들을 발견하였다. 또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활동을 철학적 바탕이 없이 '투입하고 보자, 재밌으면 됐지.' 하고 투입하던 중 " 이래서는 안된다. "는 생각이 들었고, 학생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수업, 학생들의 생활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수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



## 학생으로서의 고민


선생님은 맨날 나만 공부 못한다고 혼낸다. 그런데 3학년 때부터는 왜 배우는지도 모르는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다. 나는 이제 4학년이다. 영어를 배운 지 1년이 되었지만 실제로 쓰지도 않는 영어를 왜 공부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도 부모님은 내러리 대학교를 가려면 배우야 한다고. 그것은 그렇다고 치자, 난 선천적으로 영어를 못하게 태어난 것 같다. 다른 애들은 발표도 잘하고 시험도 잘 보는데 나는 실수할까봐 걱정되고 못하면 애들이 놀릴까봐 스트레스를 받는다. 특히 팀 게임을 하다가 내가 실수라도 하면 아이들이 날 잡아먹으려는 듯이 비난한다. 그래서 저는 영어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하루에 단어를 20개씩 외워야 한다고. 불쌍한 내 인생..

해결 방법이 없는 걸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어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아이들의 자신감'에 대한 문제를 놓고 '소통'의 열쇠를 찾기 위해 고민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영어의 필요성'은 결국 실제 생활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 생활이라 하여 거창하게 TV 나 영화에서 나오는 영어, 인터넷, 길거리에서 만나는 외국인(아주 드물게)라기 보다는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소소한 이야기**'들이 소재가 되어 영어로 이야기할 때, 이것이 아이들과 나에게 '실생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형성되는 '**공감대**'가 **소통의 열쇠**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아이들의 '**자신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나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게 되었다.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옆집 중학교 언니가 나에게 알파벳과 영어 단어를 가르쳐주었는데 뭘지 몰라서 위축되었던 경험, 그래서 언니가 아무리 가르쳐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경험, 그러다가 중학생이 되어서 영어 팝송이 좋아 영어를 좋아하게 되고 열심히 하다 보니 실력이 늘게 된 경험이 떠올랐다. 그 때 스치는 생각이, '아, 아이들이 좋아하고 자신 있어 하는 방법으로 영어를 공부하게 하면 되겠구나!'였다. 아이들마다 좋아하는 활동 및 강점 지능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습 스타일을 분석해서 아이들에게 맞게 '**아이들이 잘 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공부하는 맞춤형 영어 수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본 연구의 첫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 Authentic Story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 인터넷 영어 동화책, 대중 매체 등을 잘 활용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소소한 이야기**를 담아내면 이것이 소통의 열쇠가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Authentic Story)



### VAST Interaction

또한 영어교수법과 관련된 책을 읽다가 Fleming의 VAK 모델을 접하게 되면서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Learning style)을 고려한 교수방법을 접하게 되었다. 학생들이 **자신의 강점으로 영어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학생들이 보다 더 자신감 있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V.A.S.T. interaction/(V)isual, (A)uditory, (S)ociable, (T)actile)



### Authentic Story 속에 꽃피는 VAST Interaction

이를 통하여 학생들이 자신감 있고 즐겁게 참여하는 감동이 있는 영어수업을 하고 싶은 꿈이 생겼다. 그리하여 부족한 점이 많은 교사이지만 아이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며 다음과 같이 목표와 계획을 세워 실천하게 되었다. (→생활 속 이야기(Authentic Story)에서 꽃피는 V.A.S.T. interaction)

## 2 열매를 꿈꾸며

첫째, 실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하여 실제상황에 바탕을 둔 영어수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둘째, 학습스타일(Visual, Auditory, Sociable, Tactile)을 고려한 활동을 구안하여 의사소통전략 중심 TEE 교수-학습활동을 전개한다.

셋째, 교실 안팎에서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실제 생활에서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 II. 설계하며

### 1 학생들의 모습을 살펴보니

- 연구 대상 : 광주계림초등학교 4학년 1반 (총 23명)
- 연구 기간 : 2012년 3월 ~ 2013년 2월

### 2 이렇게 펼칩니다

실행목표 1. 교과와 생활 속 Authentic Story 학습환경 조성

실행 목표 2. 학습자의 Learning Style에 맞는 티칭 전략 구상 및 전개

실행 목표 3. 유의미한 상황 속에서의 interaction 활성화

III. 실천하며

1 교과와 생활 속 Authentic Story 학습환경 조성

단원별 의사소통 기능 및 목표언어를 분석하여 이에 맞는 이야기책을 제공하고, 우리의 삶속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Authentic Story'를 만들어 수업에 활용하였다.

단원	의사소통기능	Storybook	자료 및 상황
1. How Are You?	<input type="checkbox"/> 안부 묻고 답하기 <input type="checkbox"/> 기쁨, 슬픔 표현하기 <input type="checkbox"/> 상태 표현하기		<input type="checkbox"/> 어떤 자료를? 교사자료, 학생자료, 사진, 교과서, News, Drama, Video-clip, Cartoon, Etc.
2. How's the Weather?	<input type="checkbox"/> 사실적 정보 묻고 답하기 <input type="checkbox"/> 제안하고 답하기		<input type="checkbox"/> 어디에서? 영어교실, 인터넷카페, 유튜브, 구글, 인디스쿨, mes-english, EBS e, 등
3. You Look Great!	<input type="checkbox"/> 칭찬하기 <input type="checkbox"/> 사실적 정보 묻고 답하기		<input type="checkbox"/> 어떻게? 동영상/사진 촬영 및 편집, 인터넷 자료 편집, PPT 제작, 등
4. What Time Is It?	<input type="checkbox"/> 사실적 정보 묻고 답하기 <input type="checkbox"/> 주의 끌기		<input type="checkbox"/> 어떤 상황에서? 학생들의 실생활(가정, 학교, 등)을 바탕
5. Wow, It's Friday	<input type="checkbox"/> 사실적 정보 묻고 답하기 <input type="checkbox"/> 약속 제안하고 응답하기		
6. How much Is It?	<input type="checkbox"/> 사실적 정보 묻고 답하기 <input type="checkbox"/> 원하는 것 묻고 답하기		
7. That's a Good Idea!	<input type="checkbox"/> 동의하기 <input type="checkbox"/> 반대하기		



<p>8. What Are You Doing?</p>	<p><input type="checkbox"/> 사실적 정보 묻고 답하기 <input type="checkbox"/> 격려하기</p>	
<p>9. She's a Police Officer</p>	<p><input type="checkbox"/> 사실적 정보 묻고 답하기 <input type="checkbox"/> 대화 지속하기</p>	
<p>10. I Went Skating Yesterday</p>	<p><input type="checkbox"/> 사실적 정보 묻고 답하기 <input type="checkbox"/> 보고하기</p>	


**2 학습자의 Learning Style에 맞는 티칭 전략 구상**

→ Visual Learner(시각적 학습자), Auditory Learner(청각적 학습자), Sociable Learner(사회적 학습자), Tactile Learner(촉각적 학습자)에 맞는 맞춤형 수업을 계획하여 진행하였다.



"VAST interaction(학습자들의 학습양식을 고려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vast interaction(어마어마한 상호작용)을 꽃피게 한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 학생들의 학습스타일을 고려한 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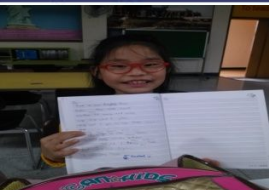
학습 스타일	활동장면	선호하는 학습 활동
시각형 (Visual)		애니메이션, 만화 시뮬레이션, 비디오, 그래프, 마인드 맵, 그림, 이미지 책, 유인물



<p>청각형 (Auditory)</p>		<p>오디오 북, 강의, 연설녹음, 녹음된 책 라디오, 대화, 토론, 담화</p>
<p>사회형 (Sociable)</p>		<p>짝이나 모둠과 함께하는 활동(퀴즈, Word search 등)</p>
<p>촉각형 (Tactile)</p>		<p>실생활 보기, 시범 실험, 육체적 활동, 조립하기, 역할극, 모델 만들기</p>

**3** 유의미한 상황 속에서의 interaction 활성화

→ 학생들의 학습스타일을 고려한 수업의 예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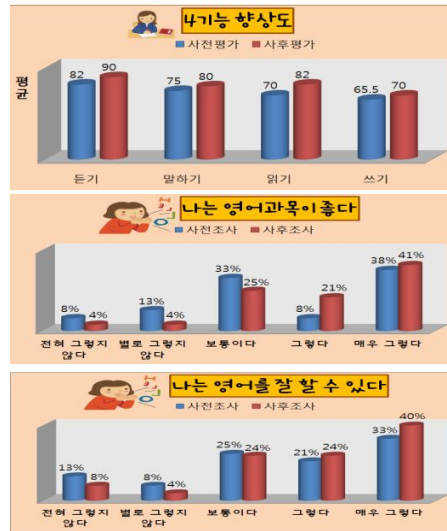
언제	활동		활동 의도 및 효과
<p>영어 수업</p>	<p>학생과 교사간 상호작용</p> 	<p>학생과 학생간 상호작용</p> 	<p>□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생과 학생 간에 실제적인 의사소통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을 구안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p>
<p>영어수 업 외</p>	<p>파닉스 공부</p> 	<p>영어 일기 쓰기</p> 	<p>□방과 후에 희망자를 대상으로 Phonics 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신이 써 온 영어일기를 선생님께 읽어드리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p>



IV. 마치며

1 **결과는 이리해요**

‘생활 속 이야기에서 꽃피는 VAST Interaction’을 적용한 결과, 의사소통능력의 바탕이 되는 4 기능에서 듣기 8%, 말하기 5%, 읽기 12%, 쓰기 4.5%가 향상되었다. 또한 태도 영역에 있어서 영어학습에 흥미를 느끼는 학생이 46%에서 62%로 16% 증가하였다. 자신감을 묻는 설문 조사에서는 자신감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51%에서 61%로 11%증가하였다. 이는 생활 속 이야기와 학습 스타일을 고려한 수업방식이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과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2 **결론은 이리해요**

첫째, 실생활 자료에 생활 속 이야기를 담아 수업을 진행한 결과 학생들이 수업에 더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였으며 상황과 맥락 속에서 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학습스타일(Visual, Auditory, Sociable, Tactile)을 고려한 활동을 구안하여 수업한 결과, 다양한 스타일의 학습자들을 포용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셋째, 교실 안팎에서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영어수업에만 사용하는 기계적인 영어가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살아있는 영어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며 의사소통 할 수 있었다.